

성화 V :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님

오늘은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 :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KJV 에서는 sanctification 으로, NIV 에서는 sanctifying work 으로 번역하였습니다. NIV 에서는 거룩케 하시는 행위 자체에 역점을 두었다. 문맥적으로 보면 NIV 가 더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자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거룩케 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은 중생을 시발점으로 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룩케 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디도서 3 :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성화는 두 방면에서 진행됩니다.

그 첫째는 죄의 권세에서의 점진적 해방과 함께 성령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에 대해서 부터 공부를 해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인격의 어떤 부분을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습관, 생각등을 이용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얼마나 비극적으로 처참하게 우리의 내면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화는 멀고 먼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죄가 자신의 타고난 기질, 습관, 생각등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인내,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내고 있다고.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 :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적해야지 육신으로 대적하려고 해선 않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면 듣기를 싫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은 자유를 위함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 어둠의 세력을 자신의 내면에서 축출하는 데 부단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인격을 주관하는 증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 로마서 7:22-24 을 보십시오.

로마서 7: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여기에서 한 다른 법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둘째 사람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순종만 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자발적 순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후 1:17에서 말한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 안에서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둘째 사람 예수님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솔직히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얼마나 순종을 못합니까? 더우기 반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면서

로마서 7:20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인격의 분열, 자기 분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자기 분열 증세가 있다” 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로 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지정의가 가지런히 질서있게 정돈되어 있어서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모니가 아담의 인격안에서 깨어진 것은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 오고 난 다음 부터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타락을 후손에게 물려 주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 안에는 악이 들어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고백한 바대로 분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 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위에서 살 때 죄의 권세로 부터 자유도 주십니다. 아울러 내세에서는 죄의 현존에서도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둘째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일하시는대로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위해 매달려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육으로 대적하려 했다가 불쌍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을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로 매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약자의 노예 근성이라고 하며,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초인을 주창한 사람이 니이체입니다.

여러분!

니이체가 추구하였던 이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기에서의 해방입니다.

니이체의 ‘짜라투스트라는이렇게 말하였다’ 는 자기에서의 해방을 추구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니이체 그 자신은 자기로 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는 어느 쓸쓸한 저녁 외로운 시골역에서 광인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권력에의 의지로 자기 극복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가 왜 광인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까? 초인의 이상을 꿈꾸며 한번도 고독을 느끼어 보지도 못했다는 그가 왜 그 이상을 자기에게 적용도 못해보고 외로운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니이체는 자기 극복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의지, volition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 안에 있는 강한 욕구가 윤리와 충돌이 올 때, 의지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격의 분열이 따라오게 됩니다. , 즉 자기분열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초월하지 못하면, 광인이 됩니다. 까뮈의 이방인의 외르소오처럼 작열하는 태양때문이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로 아랍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게되거나,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라니코프처럼 우울증으로 빠져들어,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는 그런 우발적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로스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배워라’ 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 네가 가장 원하게 될 것 그 것을 지금 하라” 고 할 수 밖에 없는, 배부른 사람의 범인의 철학에 만족하게 됩니다.

어쨌든 분열이 올 때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로 승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정신 분열이 다가와 광인이 되게 하거나, 국가, 사회적으로 적용되면 파시즘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로 승화하지 않으면, 이런 분열과 탈선에서 해방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니이체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저는 신앙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인격의 조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욕으로 욕을 제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을 줄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2 :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면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삼단계, 즉 앎과 여김과 헌신의 삶은 구원론 아홉째주 성화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다루고 성령과의 연합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1. 앎(Knowledge)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한 ‘앎’에는 중요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 :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것이며, 이것은 미래에 될 일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과거의 시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예수님을 주장 못하듯,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롬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줄 앎이라.

2. 여 김

롬 6: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

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

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

길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을 알았을찌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 때마다 십자가에 못박혔다가 다시 부활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못박혀 죽었으니,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계속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요? 그것은 옛사람의 죄의 습관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으나, 우리는 너무 오랜동안 죄의 종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종살이 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옛사람이 살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새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믿고 여기는 것을 반복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여,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 :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성도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고후 5;4-5³⁾).

3. 현 신

롬 6;12-13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현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것이 됩니까?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화받지 않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는 망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성취됩니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은 죄의 권세에서의 점진적 해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성령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